

이력서 작성법

이력서 준비

회사에 제출할 때 크게 2가지 종류의 PDF 파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1. 이력서: 신상정보, 학력, 경력, 프로젝트 경험 등을 담은 자유 양식의 PDF 파일
2. 포트폴리오: 각 프로젝트 별로 구현 세부 사항을 담은 PDF 파일

이 중에서 경력직의 경우엔 포트폴리오를 생략하고 이력서만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입의 경우에는 내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어필해야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이력서와 포트폴리오를 노션으로 먼저 작성하고, 웹사이트 형태로 배포하여 첨부하는 방식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할 때는 PDF 문서 형태로 만들어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션으로 만든 웹 사이트의 링크를 이력서 상단에 첨부하면 됩니다.

개발자 이력서 작성법

이력서 포맷은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 잘 정리된 블로그가 있어서 공유합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어떤 형태로 작성해야하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https://wonny.space/writing/work/engineer-resume>

데이터 분석 직군 분야 이력서 작성법

자 그런데 우리는 일반 개발 직군이 아니라 데이터 분석 직군을 지원해야하죠? 일반 개발 직군이라면 어떤 기술 스택들을 사용할 수 있고, 어떤 기능을 어떻게 구현했다고 작성하기만 하면 돼서 비교적 쉽습니다. 데이터 분석의 경우에는 경험한 프로젝트를 설명할 때 아래 내용들을 꼭 포함해주세요.

1. 분석 배경: 왜 이러한 분석을 하게 되었는지

2. 데이터 수집: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였는지
3. 가설 수립: 어떤 가설을 왜 수립했는지
4. 데이터 분석: 어떤 기법을 어떻게 적용해서 가설을 검정했는지
5. 결과 해석: 도출된 결과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지
6. 결론: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얻은 인사이트로 실제 어떠한 액션을 취할 수 있는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생각으로 데이터를 분석했고, 얼마나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지입니다. 이 과정을 잘 어필해야 실제로 내가 현업에서 어떻게 일하는 지 느낌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직군 기술 스택

개발자 이력서를 작성할 때 꼭 기술 스택을 적으라고 합니다. 우리 과정의 경우 아래 같은 스킬 위주로 작성하면 됩니다.

사용 가능 언어: python, SQL

python 언어를 이용해서 데이터의 수집과 전처리, 모델링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SQL을 사용하여 RDMBS나 bigquery같은 데이터 웨어하우스로부터 자유롭게 원하는 데이터를 읽어와 분석할 수 있습니다.

통계: python statsmodels, scikit-learn

통계적 가설 검정 기법 및 선형 회귀, 시계열 분석의 기초 이론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python 라이브러리들을 사용하여 각종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으며, 통계 모델을 구축하고 성능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머신러닝: python scikit-learn, torch

decision tree, clustering, linear regression 등 다양한 형태의 머신러닝 모델들을 직접 학습시키고, 성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torch를 사용하여 간단한 딥러닝 모델을 직접 학습시킬 수 있습니다. 그 외에 LLM을 이용해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 때, 반드시 python과 SQL에 모두 능하다는 부분을 강조해주세요. 실제 현업 데이터 분석가들 중에는 python을 제대로 못 다루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학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주먹구구 식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기초 통계 이론을 열심히 공부했다고도 어필해주세요. 단, 면접 때 관련 질문들이 들어오니, 준비를 잘 해두셔야 합니다.

포트폴리오 프로젝트

포트폴리오에 프로젝트를 몇개 넣는게 좋다는 정답은 없습니다만 2~3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본인이 지금까지 한 프로젝트들 중에서 가장 많은 기여를 했고, 가장 고생을 많이한 프로젝트를 골라서 어떤 경험들을 했는지 상세하게 적어주세요. 다이어그램이나 실제 구현한 웹 사이트 화면처럼 시각자료를 많이 포함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왜 이런 분석을 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과를 이끌어냈는지 강조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작성했는데 분량이 4~5 페이지 정도 나왔다면 이력서에 묶어서 PDF 파일 하나만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력서 작성 시에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

이력서 작성할 때 꼭 내가 궁금한 사람으로 보여져야 합니다. 누군지 만나보고 싶고, 면접을 보고 싶고,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으로 비춰져야 합니다. 이것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바람직한 이력서에 대한 몇가지 기준이 생깁니다.

- 못생기고 딱딱한 이력서보다는 잘 정돈된 깔끔한 이력서가 좋습니다.
- 장황한 텍스트 보다 핵심만 딱딱 정리된 이력서가 좋습니다.
- 애매한 서술 보다는 명확하게 의미가 전달되는 것이 좋습니다.
- 한 사람의 스토리가 전달되는 이력서가 좋습니다.

마지막에 스토리가 전달되어야 한다는 부분이 어렵습니다. 근래에 보면 코딩 부트캠프가 정말 많이 생겨났습니다.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수많은 부트캠프 수료자 중에 한사람으로 비춰지기 쉽습니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트캠프에 지원하기 이전의 삶과 연결시켜야 합니다.

원래 나는 이런 일을 하며 이런 경험을 쌓았다.

→ 그런데 데이터 분석이랑 AI 분야가 이런 측면에서 매력이 있었고 공부해보고 싶었다.

- 부트캠프에 가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이런 지식과 이런 프로젝트를 경험했다.
- 이런 역량을 바탕으로 이런 분야에서 이런 일들을 해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내가 왜 부트캠프에 가게 되었고, 어떤 걸 경험했고, 앞으로 뭘 하고 싶은지 설득력 있게 전달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 스토리 뼈대에 프로젝트 경험을 살로 붙여주면 됩니다.

정리

원래 취업 준비와 이력서 작성 과정은 매우 고통스럽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렇지만 포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명품처럼 포장해야 관심을 가지고 면접에 불러줍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일단 이력서 초안을 작성한 다음 여러번 수정할 것을 권합니다.